

전 남

■순천 정원박람회 유치 1년

부지 보상 97%·나무 70% 확보

조직위 출범 안돼 공사 차질 우려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스페인 사라고사로부터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 도시로 순천시가 확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진지 꼭 1주년을 맞았다.

순천시는 "오는 2013년 열리는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그동안 정부와 관련 단체의 지원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고 시민들의 참여속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원박람회 준비 본 궤도올라=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지난 1월 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할 실시설계에 들어가 다음 달 완료한후 연말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지 보상도 97% 이상 완료됐으며 박람회장에 필요한 나무도 3만3000주 가운데 2만 2000주를 확보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원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원유치 또한 탄력을 받고 있으며, 오는 10월 2~8일 순천에서 열리는 '제62차 국제 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 준비로 분주하다.

◇앞으로의 과제=최근 열린 15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정원박람회 추진기구인 조직위원회 출범 관련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조직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게 됐다. 박람회장 보상이 97%이상 진행됐고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오는 12월부터 조성 공

사에 들어가야 하나 조직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 공사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시는 "45억원의 농지전용 부담금 절감 및 수익사업 운영 등 탄력적인 박람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시의회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수반돼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시는 정원박람회 개최이후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 등 후방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녹색성장 선도도시로서 전남 동부권의 생활 중심지로 위상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박람회는 순천시 700년 역사상 최대 현안 사업으로 이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할 기회"라며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표본 박람회'로 인정받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사업인 만큼 모든 시민과 시의회·기관단체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오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순천시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서 개최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엄마랑 선생님이하 '영차영차'

구례 공립 유치원생들이 지난 15일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학부모·교사들과 어울려 공물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만용) 주최로 열린 이번 '어울림 한마당 재충전지'에는 관내 공립 병설유치원 10개소 원아들과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영산강, 수변생태공간으로 탈바꿈

기존 경관에 휴식공간 더해 역사·문화 함께하는 명소로

영산강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5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심평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과 임성훈 나주시장, 장성호 익산청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영산강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은 생태하천·습지·갈대 군락지 등 기존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자연거닐·쉼터·전망대 등을 갖춰 영

산강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들은 나주에 설치되는 강변저류지에 테마박물관, 레일바이크, 스포츠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명소로 조성해 줄 것과 석관정, 금강정 등 지역 문화유적과 연계한 황포돛배 운영을 위한 나루터 복원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전남지역



에 적합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필 본부장은 "식영정과 석관정 등 이번엔 선정된 영산강 '8경(景)'을 생태·역사·문화가 함께하는 명소로 만들어 주민들이 강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지자체와 지

역의 생태·문화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역량을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에 집중해 영산강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친인간적인 수변생태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화순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본격 가동

오늘 준공식... 호남·제주지역 약재 전국에 공급

전남 한·의약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화순에 들어섰다. 화순군은 17일 화순읍 내평리 지방산업단지내 전남생물산업연구센터 인근에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준공식을 갖는다.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 유통지원시설은 부지 2만㎡, 건물 연면적

5873.68㎡ 3층 규모로 전처리 가공시설과 저장시설(냉장·냉동·냉습)·한약재 품질검사실 등을 갖췄다.

이번 시설은 화순군을 포함해 강원도 평창·충북 제천·경북 안동·전북 진안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BTL 사업으로 추진됐다.

유통지원시설은 앞으로 광주·전남

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한약재를 수매해 전국에 공급, '한약재 유통메카'로 우뚝 서게 될 전망이다. 시설운영은 화순군과 민간이 공동출자법인 회사를 만들어 맡을 계획으로, 10월부터 본격적인 한약재 수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원준 화순군수는 "한약재 재배 농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한약재 품질관리의 현대화를 통한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 화순군 한의약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윤수기자 unsu@

화인코리아, 죽 수출로 쌀소비 앞장

쌀 400여t 소비... 연말까지 436만달러 수출 기대도

국내 대표적인 닭·오리 가공업체인 (주)화인코리아가 죽 수출을 통해 외화벌이와 함께 남아도는 쌀소비를 고민하는 농가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다.

16일 (주)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에 따르면 올해 130만 불지의 인삼 닭죽·오리죽 등을 대만 등지에 수출, 186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연말까지 250만달러의 수출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모두 436만달러의 수출실적이 기

대된다. 첫 수출을 시작한 2008년 215만 달러, 지난해 307만달러 등 수출실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제품은 인삼닭죽과 전복죽, 오리죽 등으로 공급량 기준으로 1200여t이 넘는다.

특히 수출제품이 죽인 만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쌀로 무려 400여t을 소비했다. 나락으로 환산하면 40kg들이 1만7000여가

마에 해당하는 양이다.

게다가 쌀 이외에 대추·은행·황기 등이 들어간 관련 약재와 농산물 소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동남아와 일본·미국·유럽 등 수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죽 시장에 대한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현재 수출실적의 10배 이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원주 대표는 "연간 수백t의 쌀을 소비하는 만큼 최소한 식용이나 홍보용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장흥에 한·러 '해양응용실험센터' 개소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도, 장흥군은 16일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에서 해양정보통신 장비의 시험소로 활용될 '해양응용실험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주한러시아 대사관의 모로조프 영사, 정병재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이명철 장흥군수, 관련 기업체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러 연구진이 상주하게 될 실험센터는 전남도와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으로 설립한 장성의 '한·러 MT-IT융합기술연구센터'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실험하고 상용화하는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설립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종주 강진군 산림조합장 득표율 62.6%로 재선 성공

이종주(65) 강진군 산림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14일 열린 강진군 산림조합 선거에서 유효득표율 62.6%인 1433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총 4353표 조합원 가운데 2287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2.5%를 기록했다.



이 당선자는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조합원을 위한 산림조합이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재임기간 동안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업무평가 3년 연속 경영지도우수조합 선정 ▲전남최대 강진읍 서산리 '난대림 양묘장' 준공 등 성과를 올렸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with multiple columns for '금산공인중개사', '대인동심일부동산', '복돼지부동산',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믿음 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and '부동산 미분양'. Each column lists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with contact information.